

귄터 그라스와 제 3세계의 만남

양 태 규 (서울대)

I. 머리말

“국외에서는 인정받는 반면 국내에서는 미움받는 작가 Im Ausland geschätzt - im Inland gehaßt”¹⁾로서의 그라스에 대한 독일 내의 일부 부정적 시각은 그라스의 문학과 정치관 사이의 생산적 균형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 기인한다. 그의 “독일 작가로서는 매우 예외적으로 일신을 투신한 für einen deutschen Schriftsteller ganz exzeptionellen, persönlichen Einsatz”²⁾ “전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현실정치 참여 weltweit völlig singuläres tagespolitisches Engagement”³⁾와 문학 사이의 생산적 균형은 그라스의 작가적 정체성의 핵심이며, 이는 무엇보다 ‘동시대인 Zeitgenosse’로서의 작가인 동시에 시민으로 자신을 자리매김한 그라스가 독일의 역사적 죄과와 치열하게 대결한 결과이다. 이 점에서 그라스의 전기는 독일의 시대사와 운명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1) 1997년 10월 17일 그라스의 70회 생일을 기념해 Köln에서 개최된 국제 그라스 학술대회 제목.

2) Volker Neuhaus: Schreiben gegen die verstreichende Zeit. Zu Leben und Werk von Günter Grass, München 1997, S. 109.

3) Volker Neuhaus: Das dichterische Selbstverständnis und seine Entwicklung bei Günter Grass, in: Gunter E. Grimm(Hg.): Metamorphose des Dichters. Das Rollenverständnis deutscher Schriftsteller vom Barock bis zur Gegenwart, Frankfurt am Main 1992, S. 274-285, hier S. 282.

1927년 발트해의 옛 한자도시 단치히 시의 교외인 랑푸어에서 출생한 그라스는 식료품 가게를 하던 부모 밑에서 소시민적 환경에서 소년기를 보낸다. 신교도인 그의 부친은 1936년 NSDAP 당원이 되며, 한편 그의 모친은 구교도로서 슬라브족의 소수민족인 카슈바이 출신이었다. 1942년 그가 15세 되던 해 “학교 교육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착각한 als Freiheit von der Schule mißverstanden” 공군 보조병 시절로부터 시작하여, 17세에는 전차병이 되었으며, 종전과 함께 그는 자기 또래 수십만 명과 같이 미군의 전쟁포로가 된다. 후일 그라스는 이 당시의 상황을 “믿음의 교리로써 우둔하게 훈련되고 이에 상응하여 이상주의적 목표설정으로 연마된 mit einem Glaubenssätzen dummgehalten und entsprechend auf idealistische Zielsetzungen getrimmt”⁴⁾ 상태로 회상하고 있다:

나는 이제야 성숙했음을 알았다. 이제야, 아니 오히려 이제부터, 서서히 나의 청소년 시절이 어떤 악용의 대상이 되었던가를 명료히 알게 되었다. 이제야,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훨씬 경악스러운 정도로 나는 나의 세대의 장래를 담보삼아 그 어떤 불가사의한 범죄가 저질러졌던가를 파악하게 되었다.

Jetzt erst war ich erwachsen. Jetzt erst, nein, vielmehr nach und nach wurde mir deutlich, was man [...] mit meiner Jugend angestellt hatte. Jetzt erst, und Jahre später in immer erschreckendem Maße, begriff ich, welch unfaßliche Verbrechen im Namen der Zukunft meiner Generation begangen worden waren.⁵⁾

바로 이 “독일인의 자아도취에서 생겨난, 계급과 종교의 차이를 막

4) Günter Grass: Schreiben nach Auschwitz, in: ders., Gegen die verstreichende Zeit. Reden, Aufsätze und Gespräche 1989-1991, Hamburg/Zürich 1991, S. 42-73, hier S. 42.

5) Günter Grass: Werkausgabe in zehn Bänden, Bd. IX, Hg. von Volker Neuhaus, Darmstadt und Neuwied 1987, S. 163. 이후로 Werkausgabe로부터의 인용시 괄호안의 로마 숫자는 권수, 아라비아 숫자는 쪽수를 지칭함.

론하고 모두가 빠져든 우둔함 sich aus deutschen Selbstgefallen näherende allgemeine, Klassen- und Religionsunterschiede überwältigende Dummheit”⁶⁾은 예컨대 “군기는 죽음보다 고귀하다 Die Fahne ist mehr als der Tod”는 맹목적인 충성심으로도 나타났다. 아우슈비츠라는 이름으로 표상되는 이 복합적 죄의식은 청년 그라스에게 도전의 대상이 되었다. 예술가가 되려는 “세속적 vulgär” 소망에 가득차 있던 그에게 아우슈비츠는 예술을 통해 우선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뉘른베르크 전범소송에서 나치의 청소년 지휘관이었던 쉬라흐 Baladur von Schirach가 조직적인 유태인 학살을 시인하고 나서야 청년 그라스는 독일인의 손에 의해 저질러진 상상할 수 없는 사실을 비로소 확인하게 된다. 이후 그라스는 아우슈비츠란 “의식에서 몰아낼 수도, 제어할 수도 없는 치욕 Schande weder verdrängen noch bewältigen lassen wird”⁷⁾이라는 인식에 도달한다.

II. 그라스의 예술가적 성장의 시금석으로서의 아우슈비츠

그라스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시작된 글쓰기의 동기화는, 아도르노에 의해 “문명사의 휴지(休止)이자 불치의 파멸 Zäsur und unheilbarer Bruch einer Zivilisationsgeschichte”이라고 불리어진 아우슈비츠로 인하여, 동시에 아우슈비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예술가적 경로의 시작기에 아도르노가 말한 구약 성서적 “금지 목록 Verbotstafel”에 의해 도전받게 되는데, 결국 아도르노의 이 정언은 후일 “경고목록 Warntafel”임이 입증된다. 아도르노에 의해 설정된, 다니엘서에 나오는 경계의 목소리, 메네텔 Menetekel은 오늘날까지 그라스에게는 예술가로서의 그 자신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하나의 봉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요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다. 아우슈비츠 이후 예술활동은 이전과 같이 가능한가? 아도르노는 다음과 같이 언명한다.

6) Günter Grass: Schreiben nach Auschwitz, a. a. O., S. 43.

7) Ebd., S. 44.

아우슈비츠 이후 시를 쓴다는 것은 야만적이다. 그것은 인식을 잡아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시를 쓴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Nach Auschwitz ein Gedicht zu schreiben ist barbarisch, und das frisst auch die Erkenntnis an, warum es unmöglich ward, heute Gedichte zu schreiben.⁸⁾

이 아도르노식 정언에 대한 신진 작가이자 시인인 그라스의 입장은 무엇보다 반항의 그것이었다. 그에게는 글쓰기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할 여유가 없었다. 더욱이 예술가로서 침묵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 이 새로운 정언명령과 같은 추정적 금지목록에 맞서 그라스는 공공연히 저항의 입장을 편다. 사실 아도르노가 이 말로 의도한 바는 이 문명의 파멸 이후 아우슈비츠를 모든 정신적 입장의 척도로 삼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그라스를 위시한 당시의 세대들은 이 아도르노의 정언을 협의의 의미로 이해함으로써, 오히려 이 금지명령이야말로 야만적 행위라고 대응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한 그라스의 결론은 반이데올로기적·반이상주의적 입장의 설정으로서, “의혹과 회의 Zweifel und Skepsis”⁹⁾를 표방하는 입장이었다.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아도르노적 명령은 “오로지 글을 씌으로써만 반박될 수 있었기 nur schreibend zu wiederlegen”¹⁰⁾ 때문이다. 그라스는 아도르노의 판정적 정언이 오로지 아우슈비츠라는 상처를 노출 시킴으로써 과거를 기억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반박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바로 이 과거의 현재화는 비근한 예로 1989년 독일의 재통일 과정을 걸쳐 그라스에 의해 상기되었는바, 형식상 성취된 독일의 재통일에 대한 자신의 견해 표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독일에 대해 사려하는 자라면, ‘독일 문제’에 대해 답을 구하는 자라면, 동시에 아우슈비츠를 같이 고려해야만 한다. Wer [...] über Deutschland

8) Ebd., S. 48에서 재인용

9) Günter Grass: “Fortsetzung folgt...” Nobelvorlesung 1999, <http://www.nobel.se/laureates/literature-1999-lecture-g.html>

10) Günter Grass: Schreiben nach Auschwitz, a. a. O., S. 52.

nachdenkt und Antworten auf die deutsche Frage sucht, muß
Auschwitz mitdenken.”¹¹⁾

그라스의 산문 「달팽이의 일기에서 *Aus dem Tagebuch einer Schnecke*」(1972)에 나타나 있듯이, 과거와 현재는 “여러 겹으로 교차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평행하여 진행되거나 가끔은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sich mehrgleisig kreuzen, aber auch parallel zueinander verlaufen und manchmal kollodieren.*”¹²⁾ 이 글에서 그라스는 “동시대인 *Zeitgenosse*”이라는 작가로서의 근본 입장을 강조한다. “작가란 사라져가는 시간에 거역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다. *Schriftsteller ist jemand, der gegen die verstreichende Zeit schreibt.*”(IV 400) 이때 죄의식과 수치심은 그라스가 전후 서독의 복고시대 현실과 논쟁하는 과정에서 그 전제조건이 된다. 『단치히 삼부작』의 주제 역시 중국에는 단치히의 전전시대, 전중시대 및 서독의 전후시대를 배경으로 한 죄의식과 수치심의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당시 경제부흥의 자족적 안위 속의 1950년대 서독사회에서 횡행하던 “나치시대를 악마화 *Dämonisierung des Nationalsozialismus*”(X 625)하는 경향에 정면으로 반하여 구상된 문학적 복안이다. 소시민의 활동 배경을 세부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이 삼부작은 어떻게 백주에 그 모든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나는 이 세 산문 작품 - 『양철북』, 『고양이와 쥐』 그리고 『개들의 시절』 - 에서 소시민적 편협함 속에서 벌어지는 모순과 부조리를,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을 한 시대의 현실 속에서 문학적 형식을 통해 묘사하려 시도하였다.

In meinen drei Prosawerken - *Die Blechtrommel, Katz und Maus* und *Hundejahre* - war ich bemüht, die Wirklichkeit einer ganzen Epoche, mit ihren Widersprüche und Absurditäten in ihrer kleinbürgerlichen Enge und mit ihrem überdimensionalen Verbrechen, in literarischer Form darzustellen.¹³⁾

11) Günter Grass: Kurze Rede eines vaterlandslosen Gesellen, in: ders.:
Gegen die verstreichende Zeit, a. a. O., S. 35-41, hier S. 40.

12) Günter Grass: “Fortsetzung folgt ...”, a. a. O.

1961년 이래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역시 자신의 ‘아우슈비츠 이후의 글쓰기’라는 과제와의 논쟁 끝에 도출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과거는 현재와 미래라는 대지 위에 과거라는 그림자를 드리운다. Die Vergangenheit wirft ihren Schlagschatten auf gegenwärtiges und zukünftiges Gelände.”¹⁴⁾ 『달팽이의 일기』에서 단치히 유태인 교회 공동체의 역사가 1969년 서독 연방선거와의 상관관계 속에 서술된다. 아울러 이 두 서술끈은 달팽이 철학이라는 미래관과의 연관선상에 놓이게 되는데, 이 ‘달팽이 철학’에 따르자면 인간의 ‘발전’이란 기껏해야 달팽이 속도도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 이성에 내재하는 퇴행적인 경향은 이성 개념의 도구화 내지는 신격화와 함께 진정한 인간의 계몽이란 과제에서 우리를 항상 반복적으로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후퇴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 역사의 모든 혁명적이고, 비약적인 단계축소의 행위는 곧 퇴화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혁명은 자신이 낳은 자식을 먹어 삼킨다.”¹⁵⁾ 1969년 벨그라드 작가회의에서 발표된 그라스의 연설 중 다음 부분은 이 점에서 보면 그 의미가 확연해진다. “미리 언급해 두고자 하는바, 저는 혁명의 반대합니다. 혁명의 미명 하에 자행되는 희생을 저는 회피합니다. 저는 혁명의 초인간적인 목표설정, 또 혁명의 절대적 요구사항, 혁명의 비인간적 비관용을 회피합니다. Ich scheue ihre übermenschlichen Zielsetzungen, ihre absoluten Ansprüche, ihre inhumane Intoleranz.”(IX 411)

III. 계몽주의 비판

계몽주의 비판은 1977년 발표된 소설 『넙치 *Der Butt*』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 작품에서 비판의 대상은 “차디찬,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만 축소된, 오로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발전에만 모든 것을 바친

13) Volker Neuhaus und Daniela Hermes (Hg.): Die “Danziger Trilogie” von Günter Grass. Texte, Daten, Bilder, Frankfurt a. M. 1991, S. 83.

14) Günter Grass: Schreiben nach Auschwitz, a. a. O., S. 65.

15) Georg Büchner: Dantons Tod. Ein Drama, in: ders.: Gesammelte Werke, hg. von Gerhard P. Knapp, München 1998, S. 42.

이성으로서, 이 이성은 스스로를 계몽이라고 자칭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애초부터 상호 반목하는 두 아이의 부모라 할 수 있다. erkalteten, aufs technisch Machbare reduzierten, einzig ökonomischem und sizialem Fortschritt verschriebenen Vernunft, die sich als Aufklärung ausgibt mit ihren von Anbeginn zerstrittenen Kindern, dem Kapitalismus und Sozialismus.”¹⁶⁾ 바로 이 계몽의 결과가 오늘날 이 세계의 도처에서 목격되는 “기아와 궁핍 Hunger und Mangel”이라는 것이다.

1975년 그라스의 최초 인도여행을 기초로 집필된 소설 『넙치 *Der Butt*』의 「바스코 다가마 *Vasco da Gama*」 장에는 그라스 작품에서 제 3세계 모티브가 차지하는 특별한 위상이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제 3세계는 “계몽주의의 독창적인, 행실이 나쁜 자손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필자] 배출해낸 der Aufklärung genial mißratene Kinder erbracht haben”¹⁷⁾ 모든 것들의 상징으로서의 제 3세계를 지칭한다. 뿐만 아니라 인도의 켈커타로 그라스가 대유하는 제 3세계의 숨길 수 없는 곤궁의 현 상황은 이전 서구의 일직선적, 발전적 역사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도의 길에 빠진 서양 계몽주의가 빚어낸 인류 미래의 재앙을 현재의 시점에 선취시켜 보여주고 있다.

제 3세계를 통해 “독일의 자아탐닉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야를 확장 [d]iese aus deutscher Selbstversessenheit befreiende Erweiterung der Horizonte”¹⁸⁾시킨 그라스는 이제 독일인으로서 또 작가로서의 이전까지의 자신의 정체성을 교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인류의 계속적 존재여부를 문제삼는 제 3세계의 상황에 비교하면 “구대륙은 장난감의 크기로 축소할 수밖에 없을 따름이며, ‘독일 문제’는 마침내 그 삼류급의 중요성을 노정시키며, 그간 쟁취해낸 아우슈비츠 이후의 글쓰기 자체가 또다시 혹은 덧붙여서 의문시되는 것이다. [S]chrumpft

16) Günter Grass: “Fortsetzung folgt...”, a. a. O.

17) Ebd.

18) Günter Grass: Vier Jahrzehnte. Ein Werkstattbericht, Hg. von G. Fritze Margull, Göttingen 1991, S. 237.

der alte Kontinent zu Spielzeuggröße, gibt die 'Deutsche Frage' endlich ihre Drittlängigkeit preis und wird das ertrotzte Schreiben nach Auschwitz abermals oder zusätzlich fragwürdig."¹⁹⁾ 인류의 미래는 제 3세계의 형상으로 선취되어 도처에 현현하고 있다.

IV. 제 3세계와의 만남을 통한 새로운 정체성의 발견

1980년 발표된 산문 「뇌산, 혹은 독일인은 사멸하고 있다. *Kopfgelburten oder Die Deutschen sterben aus*」 역시 그라스의 1979년 제 3세계 여행의 직접적인 소산이다. 『넙치』의 '바스코 다가마' 장에서는 작가 그라스의 분신에 해당되는 일인칭 서술자가 역사적 인물로서의 바스코 다가마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뇌산」에서는 실제 제 3세계를 여행하는 그라스가 일인칭 서술자로 등장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이미 끝낸 제 3세계 여행이 작품 내의 허구적 두 인물의 제 3세계 교양여행에 관한 영화 시나리오의 바탕이 된다. 여기에 덧붙여 주식, 성찰, 회상, 표어사용, 인용구 등이 한데 어우러진 몽타주와 풀라쥬 기법은 제 3세계는 물론 당시 독일 국내외 주요 관심사를 주제로 일종의 광상곡과 같은 인상을 주며 동시에 다루어진 대상에 관한 다양한 견해와 목소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작품 제목 '뇌산'의 의미는 가히 복합적이다. 아테네가 제우스의 머리에서 출산했다는 신화에서 유래한, 통상의 해산과 대비된 정신적 산물의 의미로서의 뇌산은 인류의 인구문제에 대한 서술자 및 등장인물의 주요 관심대상에 대한 상론은 물론 이 텍스트 전반에 걸쳐 고려되는 세계 인구문제에 관한 가상적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결국에는 작가 그라스의 창작활동의 결과인 텍스트 역시 일종의 뇌산의 결과인 것이다.

이 작품에서 그라스와 자신의 분신인 일인칭 서술자, 그리고 같은 행선지인 제 3세계를 여행하는 독일 고등학교 교사 부부가 끊임없이 자문하는 내용은 요컨대 독일 보수 야당의 선거전략상의 목적을 가진

19) Günter Grass: Schreiben nach Auschwitz, a. a. O., S. 70.

서독 인구의 감소 및 동시에 외국 노동자의 유입이 중국에는 독일 인종의 소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흑색선전을 기화로 날로 인구 증가를 거듭하며 초래되는 제3세계의 현실, 예를 들자면 기아, 환경 오염, 핵무기의 위험 등과 관련하여 독일인의 새로운 정체성 설정에 있다.

작품의 줄거리를 전개시키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68세대인 두 고등학교 교사부부가 제 3세계의 현실과 직면하면서 “아이를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원초적 질문에 스스로 결론을 내지 못하는 딜레마적 상황이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날로 증가하는 세계 인구 증가의 배경 속에 두 명의 독일 지식인들에게 계몽주의의 또 다른 소산이라 할 수 있는 “합리화된 이성 *rationalisierte Vernunft*”의 표본인 피임약은 제 3세계가 보여주는 또 다른 “실패한 이성 *gescheiterte Vernunft*”과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제 1세계와 제 3세계의 만남은 한편으로는 지리적 의미의 ‘공간적 타자성’, 또한 서양의 발전사적 의미의 ‘시간적 타자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피할 수 없는 제 3세계와 제 1세계의 파국을 향한 동반적 질주를 노정시킨다. 반면 그라스가 자신의 제 3세계 여행 중 강연을 통해 주창하였고, 또 작품 속에 인용된 양 독일의 통일론으로서의 “문화민족”의 개념은 제 3세계와의 만남을 계기로 확인된 독일 민족 정체성에 관한 인식의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 독일 역사의 힘을 근거로 하는 “국가 민족 *Staatsnation*”에 반하여, “문화민족 *Kulturnation*”은 문화적 보편주의를 목표로 하는 민족 정체성을 지칭한다. 이때 문화란 그 정의상 내적 다양성을 통합시키는, 외적 이질성을 필요로 하며 결코 이를 배척하지 않는 자생적 실체이다. 제 3세계를 계기로 확장된 자신의 시야는 나아가 계몽주의 비판과 문화적 타자성을 결합시키려는 그라스의 노력과 결부되는바, 이를 통해 중국의 목표는 다름 아닌 새로운 민족의 정체성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그라스 작품에서 생태학적 전환의 시작으로 일컬어지는 「뇌산」은 무엇보다 그라스의 과격한 민주주의화라는 그의 정치적 입장전환의 출발점에 위치한 작품으로서 1986년작 『암쥐 *Die Rätin*』 및 1988년 발표

된 『허 보이기 *Zunge zeigen*』를 가능케 한, 제 3세계와의 직접적 만남의 결과라는 데 큰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그라스의 1980년대 들어서서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 곤궁, 가아, 환경오염 및 핵무기 증강에 따른 인류진멸의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고찰은 1986년 문제작 『암쥐』에서 그 문학적 대답을 구하게 된다. 여기서 특별히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인간의 자신 및 기타 모든 것들을 다수에 걸쳐서 멸종시킬 수 있는 능력 Frage der Fähigkeit des Menschengeschlechts, sich selbst und alles andere auf vielfältige Weise zu vernichten”²⁰⁾인데, 이는 단순한 핵무기와 핵발전이 야기할 지도 모르는 위협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매일 매일 입증되고 있는 인류 다수의 빈곤화 현상은 아우슈비츠와 유사적 관계에 놓여 있으며 이는 나치의 최후의 해결책을 이번에는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장시켜 놓은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라스의 문학은 또다시 죄의식과 수치를 거명하는 것으로서 특징 지워지는데, 이때의 죄의식과 수치란 그라스 자신이 현재와 같은 극도로 계몽화된 세계에서 낭혹감을 갖으며 목도해야만 하는 세계의 혜택 받지 못한 자들의 곤궁(Elend)을 보고 감득하는 죄의식과 수치를 일컫는다. 여기에서 왜 하필 죄의식이며 수치란 말이며 왜 그라스는 문학이란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를 자문해 볼 수 있다.

1. 그라스의 주된 관심사는 손상입은 유럽 계몽주의 전통에 대한 비판이다. 인간은 현재 이 세계의 모든 곤궁을 제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 맹목적으로 특징지워지는 시대정신을 따르고 있을 뿐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한다. 유전공학의 진전은 이제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재앙인 굶주림은 아직도 이 세상에서 추방되지 못하고 있다. 1999년 12월 7일 스웨덴 학술원에서 행한 노벨상 수상기념 강연에서 그라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20) Ebd., S. 70 f.

실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새 콩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심장도 이식수술이 가능합니다. 무선으로 전 세계에 전화통화가 가능함은 물론 인공위성과 우주 정류장이 우리를 배려 깊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무기체제는 우리가 칭송해 마지않는 연구의 결과로 발명되고 만들어졌는데, 그 덕분에 이런 무기체제의 소유자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수히 죽음으로까지 방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인간의 두뇌가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놀랄만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로지 기아만은 해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기아는 오히려 늘고만 있습니다. 가난이 대를 이어 정착한 곳에서 가난은 빈곤화됩니다. 전세계적으로 피난민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을 동반하는 것이 기아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정치의지도 지적 능력과 힘을 합쳐 만연하는 곤궁을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Zwar gelingt es, jeden, der zahlen kann, mit neueren Nieren zu versorgen. Herzen können verpflanzt werden. Drahtlos telefonieren wir rund um die Welt. Satelliten und Raumstationen umkreisen uns fürsorglich. Waffensysteme sind, infolge gepriesener Forschungsergebnisse, erdacht und verwirklicht worden, mit deren Hilfe sich ihre Besitzer vielfach zu Tode schützen können. Was alles des Menschen Kopf hergibt, hat seinen erstaunlichen Niederschlag gefunden. Nur der Hunger ist nicht beizukommen. Er nimmt sogar zu. Wo Armut angestammt war, schlägt sie in Verelendung um. Weltweit sind Flüchtlingsströme unterwegs; Hunger begleitet sie. Und kein politischer Wille, gepaart mit wissenschaftlichen Können, ist entschlossen, dem wuchernden Elend ein Ende zu setzen.²¹⁾

2. 문학은 이와 같은 계몽주의 비판의 연관성 속에서 특유의 중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계몽주의의 한 여파로 인해 수세기에 걸쳐 이성의 개념은 일방적으로 가능한 것,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으로 축소되었고, 여타의 분야 무엇보다 계몽주의 첫 주자인 몽테뉴도 그 중요성을 인식했던 꿈과 환상을 이후의 계몽주의는 악마시하여, 본격적으로 비이성주의라고 폄하, 비방해왔던 것이다. Aufklärung hat im Verlauf der Jahrhunderts den Begriff der Vernunft zu sehr auf

21) Günter Grass: “Fortsetzung folgt ...”, a. a. O.

das Machbare, technisch Machbare, verkürzt. Andere Bereiche, vor allem Traum und Phantasie, die bei z. B. Montaigne ja noch ganz präsent sind, hat die Aufklärung ganz verteufelt, regelrecht Irrationalismus diffamiert.”²²⁾ 바로 여기에 문학을 통한, 문학을 도구로 한 원시 계몽주의로부터 등한시된 측면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오늘날에도 사라지지 않은 문학의 가치가 있다. 곧 감성적 방법을 통한 계몽의 과업이 바로 그것이다.

1986/7년 6개월간의 캘커타 체류를 바탕으로 집필된 1988년 작품 『혀 보이기』²³⁾는 일기체 산문, 목탄화 및 펜화 스케치북, 12절의 시로 이루어진 시집을 하나로 통일시켜 놓은 종합 예술품으로서 문학을 통해 역사의 패자 편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리게 한다는 그라스의 지론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라스의 제 3세계 문제점 논의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제 1세계 사람들에게 복지한계선 Wohlstandsgrenze 저 너머에 있는 제 3세계 인간들의 상황에 관심을 환기시켜 ‘경외스러운’ 계몽주의에 기초한 서유럽적 자아의 정체성을 비판하고자 함이다.

스스로 인도의 물질적 빈곤에 노정된 그라스는 이 작품에서 독일의 도덕가 및 예술가로서 피할 수 없는 서양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에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는데, 한편으로 인도의 현실과 거리를 유지하여 서양 주체의 정체성을 보전시키려는 경향과, 이에 반해 다른 한편으로는 이질적인 것에 대한 매력에 몰아하려는 경향 사이에 끝없는 주저가 전 작품을 관통해 나타나고 있다. 낯선 것에 대해 거리감을 유지하는 동시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낯선 타자와의 생산적 만남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빈곤의 미학 Ästhetik der Armut’이라든지 ‘이질자의 오물론 Skatologie des Fremden’, 혹은 ‘꿈의 담론 Traumdiskurs’ 등의 기법이 『혀 보이기』에 사용된 예술기법 들이다. 제목인 ‘혀 보이기’란 힌두 신화 중 파괴와 죽음의 여신 칼리 Kali가 자신의 살육행위 도중 스스로의 과오를 인식하여 이를 표현하는 행위로서, 수치의 모티브는 물론이

22) Günter Grass und Harro Zimmermann: Vom Abenteuer der Aufklärung. Werkstattgespräche, Göttingen 1999, S. 132.

23) Günter Grass: Zunge zeigen, Göttingen 1988.

러니와 이와 동시에 반어적인 의미로 곤궁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계몽된 인간의 무능 시인의 징표이기도 하다. 나아가 칼리의 '혀 보이기'는 이미 신화의 단계를 극복한 것으로 간주된 계몽에 내재하는 역행적 재신화화라는 계몽의 변증법의 일례이기도 하다.²⁴⁾ 이는 자연으로부터의 인간의 해방을 그 목표로 선포하며 시작되었던 인간 계몽의 역사가 즉물화와 도구화를 통해 다시금 무력한 신화의 단계로 전락한 인류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혀 보이기』는 이점에서 볼 때 서양 계몽주의의 주도 하에 전개된, 특히 그 계몽주의의 또 다른 유산인 식민주의가 도래시킨 현상을 목도하는 서양 주체의 자기 반성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라스의 에세이적인 서술 및 그림 그리기 행위는 스스로 회의에 쌓인 서양 주체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시도인 것이다. “수치심의 보다 정확한 언어를 찾고자 ein genaueres Wort für Scham [zu] suchen”²⁵⁾ 했던 『혀 보이기』의 근본동기는 따라서 40여년 전 나치의 이데올로기를 믿었던 자신에 대한 수치심의 또 다른 변형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개인적 수치심은 결국 독일 역사에 대한 죄의식과 더불어 그라스의 40년 넘은 예술가로서 활동은 물론 정치적 참여의 동인이 되었고 결국에는 부분적이거나 서구의 식민주의로 야기된 제 3세계의 숨길 수 없는 인간이 처한 곤궁의 상황에 대해 또 다른 죄의식을 표명하게 된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라스에 따르자면, 조직화된 종족 말살에 대한 암호 Chiffre로서의 아우슈비츠가 독일인에게 지울 수 없는 “경고의 상흔 bleibendes Mahnmal”²⁶⁾으로서 힘의 논리에 입각한 재통일을 애초부터 금지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로부터 도출된 인간본성에 대한 통찰력은 미래의 독일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득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라스의 제 3세계는 이제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성취 결과의 정당성을 그로 인해 의문시할 수밖에 없

24) Max Horkheimer und Theodor W. Adorno: Dialektik der Aufklärung.

Philosophische Fragmente, Frankfurt a. M. 1988.

25) Günter Grass: Zunge zeigen, a. a. O., S. 109.

26) Günter Grass: Schreiben nach Auschwitz, a. a. O., S. 73.

는 예증으로서 계몽주의 유산에 대한 시급적 역할을 함은 물론 인류의 계속적인 생존을 위한 지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전자는 독일 역사 중 가장 암울한 일면과의 생산적 소통을 위한 그라스의 창의적 기여이다. 독일내의 소위 과거만회의 실천적 문제에 대한 주된 비판은 바로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사에 집착한다는, 또한 소위 “건전한 민족정서 *gesundes Volksempfinden*”에 장애가 된다는 “도덕적 곤봉 *Moralkeule*”으로서의 성격에서 유래한다. 그라스에 있어서는 독일의 과거 및 제 3세계 문제를 논의한 결과 나름대로 미래 지향적인 시야가 형성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독일내 일부가 비판적 시야로 보듯이 전적으로 “아우슈비츠의 도구화 *Instrumentalisierung von Auschwitz*”라는 비난은 옳지 못하다.

이중, 삼중으로 자신의 뿌리를 빼앗긴 유랑인 *Nomade/Migrant*으로서 그 어느 곳에서도 뿌리박지 못하였다는 그라스는 - 제 2차대전의 피난민으로서의 그는 자신의 고향, 언어는 물론 사회규범까지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 동일자 *das Eigene*를 풍요롭게 하는 기능을 소유한 타자 *das Andere*의 특성을 주지하고 있다. 그라스에게 타자를 향한 관용과 개방적 사고는 자신의 본질적 성격에 가깝다.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이 그라스의 현실 개념의 확장으로서의 이질적인 것 *das Fremde*에 대한 그의 호기심이다.

이방인적, 이질적인 것이 본질적으로 갖는 구원적인 요소가 1992년 발표된 산문 『무당 개구리의 울음 *Unkenrufe*』²⁷⁾에 나오는 인물 수바스 찬드라 쉐타지 *Subhas Chandra Chatterjee*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인도 벵갈 출신으로 동구의 개방화 이후 그다니스크 *Gdanisk*를 비롯한 유럽의 제 도시에서 자전거 인력거 제조 및 운행 사업을 일으켜 세워 도태되어가는 유럽 대도시의 공해 문제 및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방인과 이질적인 것에 대한 극히 낙관론적 묘사는 유럽의 현실과의 괴리감을 노정시키는 것이 사실이나 제 1세계의 문 앞에서

27) Günter Grass: *Unkenrufe*, Göttingen 1992.

서, 제 1세계의 부를 공유하고자 요구하는 제 3세계 인간들의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민족이동의 필연성을 주장해 온 그라스의 입장에서 보면 제 3세계의 전위부대인 이 벵갈 출신의 사업가가 구현하는 희망의 원칙이야말로 구대륙이 당장 필요로 하는 타자적 원칙임에는 분명하다. 또한 『무당개구리』의 주된 줄거리인 <독일-폴란드-묘지 협회 Deutsch-Polnische-Friedhofsgesellschaft>라는 죽은 자의 시신을 둘러싼 독일, 폴란드 두 민족간의 화해의 시도가 내포한 회의적, 체념적 결말과 대비하여, 쉼터지의 미래지향적 사업확장은 필경 또다시 새로운 국경을 긋고 있는 유럽이 필요로 하는 구세주인지도 모른다.

V. Allotopie로서의 제 3세계

그라스의 제 3세계는 그 어떤 양상이든지 이데올로기적 독단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제 3세계는 최종상태 Endzustand로서의 모든 “공허한 희망 leere Hoffnung”은 물론 모든 형태의 유토피아, 낙원 약속을 반증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인간 발전의 유일한 행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라스의 독일 이상주의 비판, 이데올로기 비판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또 이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바로 그가 주창하는 시지푸스적 입장인바, 돌을 굴리는 사람은 그 돌이 결코 정상에 오르더라도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스스로를 “행복한 돌 굴리는 자 glücklicher Steinwalzer”²⁸⁾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라스의 해석을 따르자면 그 돌이 언젠가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것은 “끔찍한 상상 schreckliche Vorstellung”이라는 것이다. 제 3세계가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곳에서 사는 인간들의 생존 의욕이다. 그들은 그 어떤 유토피아적 관념없이 “희망과 절망과 같은 유럽적인 사고 범주의 피안에서 jenseits europaischen Kategorien wie Hoffnung und Verzweiflung”²⁹⁾ 분연히 현재와 미래의 도전에 대면하는 것이다.

28) Gunter Grass/Harro Zimmermann: Vom Abenteuer der Aufklarung, a. a. O., S. 189 f.

후굴리 강변 뱃길의 수도 캘커타는 그라스에게 하나의 미시우주로서 세계라는 거시우주에 대한 환유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이 미시우주에는 20세기말 거시우주인 세계가 겪고 있는 일련의 갈등들 - 이데올로기적, 세계 경제적, 신앙 문제적 - 과 그 결과로서의 상황이 가차 없이 노정되어 있다. 그라스의 범세계 연대의식이라는 도덕적 요구에 대한 호소는 서구를 향하고 있다. 풍요의 포화상태에 있는 제 1세계의 “환영적 반명제 visionäre Antithese”로서의 캘커타가 여타 세계의 바람직한 방향애로의 개혁을 위한 효과적인 상징으로서 기능하기를 그라스는 바라고 있다. 동시에 그들의 문화적 타자성은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경계를 초월한 우리의 정체성이 내포하는 잠재성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다. 동일자 das Eigene와 및 타자 das Andere 사이의 변증법에서 도출될 수 있는 나 자신 정체성의 복수성이야말로 양자간의 갈등 해소적 공존을 가능케 한다.

1958년 소설 『양철북』이 발표되기 바로 전, 그라스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문학적 전통에 관해 질문받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당신은 나의 문학적 전통에 관해 묻습니다. 뷔히너, 뷔히너, 또 뷔히너입니다. 그로부터 모든 것이 유래합니다. 베크트, 이오네스코, 아다모프 이들 모두 뷔히너에게 배운 학생입니다.

Sie fragen mich nach meinen geistigen Ahnen: Büchner, Büchner, immer wieder Büchner! Von ihm kommt alles her. Die Becketts, Ionescos, Adamovs haben alle von ihm gelernt.(X 6)

이 점에서 뷔히너의 『렌츠 Lenz』의 다음 인용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는 모든 생명에 존재의 가능성을 요구한다. 그래야 한다.

29) Günter Grass: Zum Beispiel Calcutta, In: Tschingis Aitmatow und ders.: Alptraum und Hoffnung. Zwei Reden vor dem Club of Rome, Göttingen 1989, S. 39-63, hier S. 43.

Ich verlange in Allem Leben, Mglichkeit des Daseins, und dann ists gut.³⁰⁾

아마도 그라스의 문학적 활동과, 정치적 참여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제 1세계와 제 3세계 인간들은 물론 모든 생명체와 환경의 존재를 가능케 함으로써 이 절망적인 세계에 하나의 위안을 구하고자 함일 것이다.

앞서 인용한 지난 12월 스웨덴의 학술원에서의 “다음 호에 연재... Fortsetzung folgt ...” 라 명명된 노벨 강의 끝부분에서 그라스는 자신의 장차 글쓰기의 대상에 관해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그라스에게 제 3세계 문제는 앞으로도 중심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나의 소설 『넙치』에서는 인간 생존의 원초적인 기반이 되는 문제, 즉 식량의 문제, 따라서 결핍과 풍요, 위대한 탐식가와 기아의 끝없는 고통, 미식의 탐닉과 이와 대조되는 가진 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빵껍질이 그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이 주제는 [2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필자] 우리에게 절실히 남아 있습니다. 축적을 거듭하는 부에 대항하여 가난은 날로 증가를 거듭하는 출산율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풍요의 북반구와 서부 국가들은 안전에 탐닉하여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에워쌀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가난한 남반구를 향하여 요새를 쌓으려고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피난민의 큰 흐름은 북반구에 다다르고 말 겁니다. 기아에 허덕이는 자들의 쇄도에 버틸 빗장이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미래의 이야기는 여기에 대해 쓰여질 것입니다.

In meinem Roman *Der Butt* geht es um die primäre Grundlage menschlicher Existenz, um die Ernährung, also um Mangel und Überfluß, um große Fresser und ungezählte Hungerleiden, um des Gaumens Freude und um die Brotrinden vom Tisch der Reichen. Dieses Thema ist uns geblieben. Dem sich anhäufenden Reichtum antwortet die Armut mit gesteigerten Zuwachsraten. Der reiche Norden und

30) Georg Bchner: Lenz, in: ders.: Gesammelte Werke, Hg. von Gerhard P. Knapp, Mnchen 1998, S. 109.

Westen mag noch so sicherheitssüchtig abschirmen und als Festung gegen den armen Süden behaupten wollen; die Flüchtlingsströme werden ihn dennoch erreichen, dem Andrang der Hungernden wird kein Riegel standhalten. Davon wird in Zukunft zu erzählen sein.³¹⁾

■ 참고문헌

- Büchner, Georg: Gesammelte Werke, Hg. von Gerhard P. Knapp, München 1998.
- Grass, Günter: Werkausgabe in zehn Bänden, Hg. von Volker Neuhaus, Darmstadt/ Neuwied 1987.
- Ders.: Zunge zeigen, Darmstadt 1988.
- Ders.: Zum Beispiel Calcutta, in: Tschingis Aitmatow und Günter Grass: Alptraum und Hoffnung. Zwei Reden vor dem Club of Rome, Göttingen 1989, S. 39-63.
- Ders.: Gegen die verstreichende Zeit. Aufsätze und Gespräche 1989-1991, Hamburg/ Zürich 1991.
- Ders.: Vier Jahrzehnte. Ein Werkstattbericht, Hg. von G. Fritze Margull, Göttingen 1991.
- Ders.: Unkenrufe, Göttingen 1992.
- Ders.: "Fortsetzung folgt..." Novelvorlesung 1999,
<http://www.nobel.se/laureates/literature-1999-lecture-g.html>
- Grass, Günther/Zimmermann, Harro: Vom Abenteuer der Aufklärung. Werkstattgespräche, Göttingen 1999.

31) Günter Grass: "Fortsetzung folgt ...", a. a. O.

- Horkheimer, Max und Theodor W. Adorno: Dialektik der Aufklärung. Philosophische Fragmente, Frankfurt am Main 1988.
- Neuhaus, Volker: "Das dichterische Selbstverständnis und seine Entwicklung bei Günter Grass", in: Gunter E. Grimm (Hg.): Metamorphose des Dichters. Das Rollenverständnis deutscher Schriftsteller vom Barock bis zur Gegenwart, Frankfurt am Main 1992, S. 274-285.
- Ders.: Schreiben gegen die verstreichende Zeit. Zu Leben und Werk von Günter Grass, München 1997.
- Neuhaus, V./Hermes, Daniela (Hg.): Die "Danziger Trilogie" von Günter Grass. Texte, Daten, Bilder, Frankfurt am Main 1991.

Zusammenfassung

**Günter Grass' Begegnung
mit der Dritten Welt**

Taekyu Yang (Seoul National Univ.)

Grass' Auseinandersetzung mit der Dritten-Welt-Problematik ist ein unmittelbares Resultat seiner Kritik an den Kehrseiten der europäischen Aufklärung, die durch die extreme Instrumentalisierung des Vernunftbegriffs zutage getreten sind. Als dystopischer Zustand der Menschenentwicklung verdeutlicht die Dritte Welt zunächst die Vergeblichkeit der Suche nach einer Utopie als menschliche Grundhaltung. Anstatt der leeren Hoffnung einer Verbesserung der Menschennatur zeigt die Dritte Welt unverblümt den unleugbaren Zustand der überlebendbedrohten Menschheit auf.

Diese Kritik der degenerativen Aufklärung wird von Grass in seiner Auseinandersetzung mit dem Selbstverständnis der Deutschen angewandt. Mit dem Begriff der Kulturnation im Gegensatz zu dem auf Macht basierenden Nationsbegriff befürwortet Grass eine auf kulturellen Universalismus zielende nationale Identität der Deutschen. Dabei ist für Grass die Besinnung auf den durch Auschwitz verkürzt gekennzeichneten Schuldkomplex der Deutschen unerlässlich. Die vergangene Schuld verbiete gerade den Deutschen, eine auf politische und wirtschaftliche Macht basierende Identitätsbildung wiederherzustellen.

Die durch Calcutta exemplarisch zur Schau gestellte Situation der Dritten Welt und der Menschheit spielt für Grass gerade die Rolle

eines Stolpersteins in seiner Identitätsfindung. Nicht nur trägt die Dritte Welt dazu bei, dass sich bei Grass eine Umwertung der Begriffe der Schönheit und der Wahrheit abzeichnet. Seine ästhetische Suche nach einem "genaueren Sinn für Scham" führt gerade einen neuen Identitätsfindungsprozess ein, der die Dritte Welt als die vorweggenommene Zukunft voraussetzt.

Die Dritte Welt ist folglich sowohl der Beweis des Versagens von Dogmatismus jeder Prägung, sie zeigt uns auch den alternativlosen Weg der Menschenentwicklung, die jede "leere Hoffnung" als Endzustand widerlegt. Was die Dritte Welt uns lehrt, ist der Überlebenswille der dortigen Menschen, die sich ohne Utopie "jenseits europäischen Kategorien wie Hoffnung und Verzweiflung" mutig der Gegenwart und Zukunft stellen.

Grass' Bekenntnis zur unter dem Stichwort 'Auschwitz' subsumierbaren Schuld und Scham gegenüber der deutschen Geschichte hat seine Verwerfung der inhärenten Züge des deutschen Idealismus zur Folge. Das dadurch entstandene ideologische Vakuum soll mit der Offenheit gegenüber dem Anderen gefüllt werden, damit die Deutschen keinen neuen Ideologien erliegen. Hier bietet sich Grass' Auseinandersetzung mit der Dritten Welt, speziell seine solidarische Anteilnahme am Anderen als neue Chance zum Umdenken an.